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과학기술체제의 도약” 세미나 개최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의장 이창기)는 2011년 7월 14일(목) 오페라 웨딩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과학기술체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와 전문가,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분과위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대전으로 확정된 이후 후속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초연구역량의 확대와 국가과학기술체제 도약과 함께 지역 성장을 동력화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고, 충청권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강연에 나선 장순흥 KUSTAR-KAIST 교육연구원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및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큰 계획(Big Plan)이 필요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및 비즈니스벨트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형 연구의 추진과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수한 두뇌를 유도해야 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가 속에서 첨단 글로벌 융합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홍승우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기초과학 연구기반 구축과 과학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는 공간적 측면, 연구 기능적 측면, 비즈니스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하며, 공간적 측면은 해외 주요 국가를 염두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 거점 도시가 여러 개의 관련 기능도시들과 벨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의 비전과 목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우수 연구자 및 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수 두뇌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나가는 두뇌’에서 ‘들어오는 두뇌’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범충청권 과학기술협력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충청권의 창조형 혁신클러스터가 새로운 혁신 체제로의 도약을 위한 수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자원, 역량에 기반한 혁신클러스터의 기획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제발표에 대하여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현병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김신근 대전대학교 무역동상학과교수, 최종인 한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본 세미나에서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정책방안들에 대하여 실무차원의 검토를 거친 후, 대전시의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WTA · 대전발전연구원 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 발전위해 공동 노력



WTA(세계과학도시연합)와 대전발전연구원은 2011. 7. 27일 11:30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호 간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현재 WTA는 39개국 77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기구로서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IASP(세계과학단지협회)등과 저개발국 과학단지 조성 및 과학기술 교류 등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역시의 지역정책 수립 및 다양한 분야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WTA는 WTA회원도시에 소재한 연구기관과 대전발전연구원 간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은 WTA가 추진하는 저개발국 과학단지건설 지원사업에 도시계획, 환경, 교통, 과학기술정책분야 전문연구인력의 참여 등을 공동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1년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 개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7월 5일(화) 10시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성평등정책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종사자, 여성관련기관 종사자, 교수, 연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2차 대전성평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언론인 및 실무자들이 미디어 속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나 분석, 방법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번 2011년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은 “미디어 속의 대전여성을 다시 만나다” 라는 주제로 임연희(중도일보)기자, 천지아(대전일보)기자의 발표가 이루어 졌으며, 김선미(디트뉴스)편집위원의 진행으로 각 주제발표에 대하여 권금상(충남여성정책개발원)연구원과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정연정(배재 대학교 공공행정학과)교수의 지정토론과, 포럼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성평등 문제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미디어의 젠더 의식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참석 자들은 앞으로의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이 주제의 초점화 및 세밀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포럼 문의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042-530-3550)로 할 수 있다. j

“ 대청호 오백리길 5차 팸투어 개최 ”

2011년 7월 21일 대청호 로하스 구간을 시작으로 수도권 초등 교장단 30여명을 모시고 개최 되었다.

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행사에 참가한 초등 교장단의 오백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의견은 사업에 직접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청호 오백리길의 전국적인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충청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교장단을 초청하여 진행 되었다. 또한, 대청호 오백리길 녹색생태관광지역 답사를 통하여 타 지역 학생들의 체험 학습 장소 유치를 유도하고 대청호 홍보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번 팸투어는 특히 대청호 주변 단체관광객 유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찬샘마을의 경우 일부 학교의 시범유치도 이루어져 앞으로 중고등학교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계획중에 있다. j



“ 사회서비스의 축제 한마당 - 사회서비스 박람회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7월 1일 ~ 2일 이틀에 걸쳐 보간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1 사회서비스박람회'에 참여하였다. 본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역사회-제공기관-구직자 간의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전국 80여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16개 시·도가 전시부스에 참여하였으며 이동인지·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 재활지원 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 창의관 등의 체험관이 운영되어 방문객의 즐거움을 더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지원단은 대전명소 7선, 복지만두레, 대전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를 알렸으며 "어르신 토탈코드" 서비스의 일환인 네일아트, 헤어, 메이크업 체험 코너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전의 사회서비스를 홍보하였다. j



“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대전의 혁신리더를 위한 BOOK DIGEST 34選』 발간 ”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의장 이창기)는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또는 삶의 길잡이가 될 만한 대표적 저술들을 소개하는 『대전의 혁신리더를 위한 BOOK DIGEST 34選』을 25일 발간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의 미래대전기획위원회 서밋포럼 특별고문과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분과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이 참여한 『대전의 혁신리더를 위한 BOOK DIGEST 34選』는 경제·경영, 사회생활, 창조, 행복, 삶의 지혜와 자기계발, 그린 사회와 리더십 등 6가지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책 34권을 소개하고 있다.

『대전의 혁신리더를 위한 BOOK DIGEST 34選』는 책이 흡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요즘과 같은 때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갈등을 겪는 일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의장기 의장은 "이제 창의와 통섭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해 갈 대전의 리더들은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學而不思 則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思而不學 則殆)'는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배우며 생각하는(學而思) 삶을 생활화 해나갔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j

“ 공정사회를 위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

대전발전연구원, 사회통합위원회 등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 간 격차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7일 14시 30분 대전발전연구원(원장 : 이창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전발전연구원과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 송석구), 한국지역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및 수도권 및 충청, 영남, 호남, 강원권 등 5개 지역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지역간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격차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성배 교수(숭실대)는 지역 간 격차의 현황분석 및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역량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역량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기회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역량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가운데서도 지역정책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준식 교수(한림대)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측면에서 지역 간 형평성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계획을 제시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계량적 지표가 필요하며, 공정한 사회는 국가·국민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창기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사회의 연간 갈등 비용이 300조원이라는 민간연구의 추정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사회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고 있는 것이며, 계층,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 리더십 아카데미와 같은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통합위원회는 토론회 결과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정책대안 및 실천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j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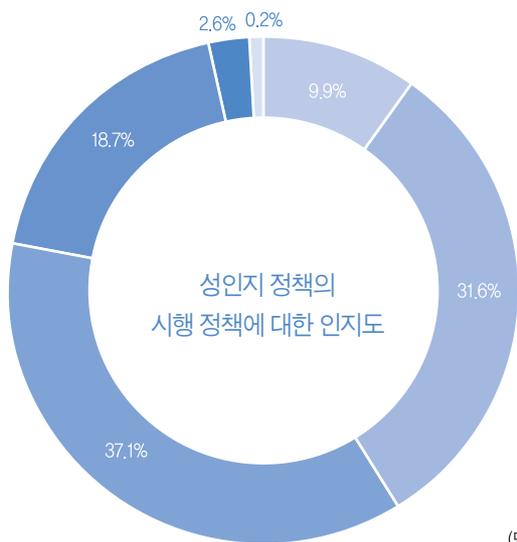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주 혜 진

대전광역시 여성 정책 실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파악과 정책 과제의 발굴, 그리고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방법으로, 대전 지역의 여성 관련한 기관과 시설의 종사자, 공무원, 연구자 등 총 507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여성정책의 홍보 정도,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사업의 수행과 성과에 대한 평가, 각 전문가의 위치에서 여성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어려움, 앞으로 대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핵심과제 등이 제기되었다.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인지도

현재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13대 핵심과제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응답자의 약 절반 가까이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홍보,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性認知) 정책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전혀 모름'과 '잘 모름'과 같이 모른다는 응답이 41.5%였으며, '그저 그러함'이라는 응답이 37.1%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다.



(단위 : %)

■ 매우 잘 알고 있음 ■ 잘 알고 있음 ■ 그저 그러함
■ 잘 모름 ■ 전혀 모름 ■ 미응답

한편, 일자리와 취업, 취약 계층 여성 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은 30% 가까운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 여성 정책이 일자리와 요보호 여성 중심으로 홍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명)	비율(%)
전혀 모름	13	2.6
잘 모름	89	17.6
그저 그러함	176	34.7
잘 알고 있음	199	39.3
매우 잘 알고 있음	27	5.3
미응답	3	0.6
전체	5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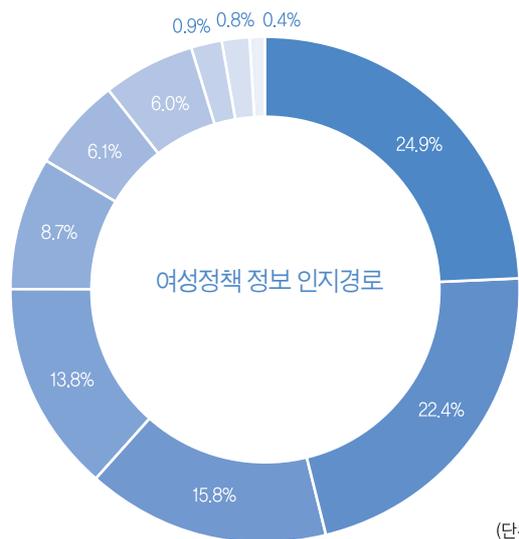
(단위 : %)

I 대상별 여성복지육구 충족 정책에 대한 인지도

대상별 여성복지육구 충족(한부모가족, 미혼모, 여성노인 지원 등)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혀 모름'과 '잘 모름'과 같이 모른다는 응답이 20.2%, '잘 알고 있음'과 '매우 잘 알고 있음' 같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6%로 대상별 여성복지육구 충족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정보 인지 경로

여성정책 전문가 및 관련자들이 여성정책 등 여성 관련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 경로와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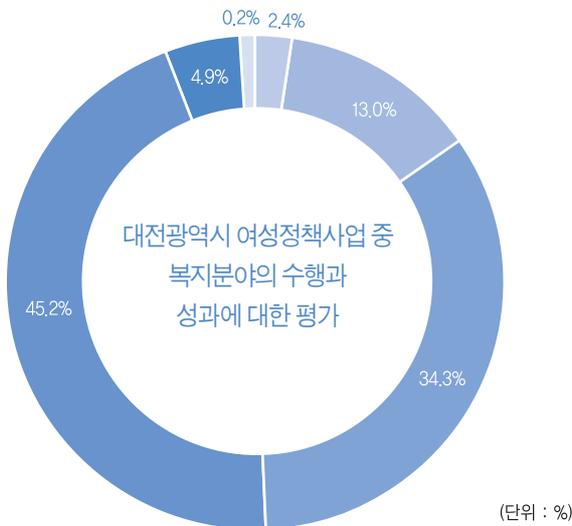
(단위 : %)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 시, 구 혹은 중앙정부 발행의 광보, 홍보전단지
■ 업무지침 ■ 교육 및 훈련기관 프로그램
■ 시 혹은 구청의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방문
■ 주변사람을 통해서 ■ 여성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음
■ 기타 ■ 아파트게시판 ■ 무가치, 버록신문 등

대전광역시 여성 정책 등 여성 관련 정보를 알게 되는 경로에 대해 복수 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 구 혹은 중앙정부 발행의 광고, 홍보전단지'가 22.4%로 나타났다. '여성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응답도 6.0%로 나타났다. 여성 관련 정보를 알게 되는 기타 경로로는 시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 시청 공무원으로 직장에서 알게 됨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대전광역시의 여성 정책사업의 수행과 성과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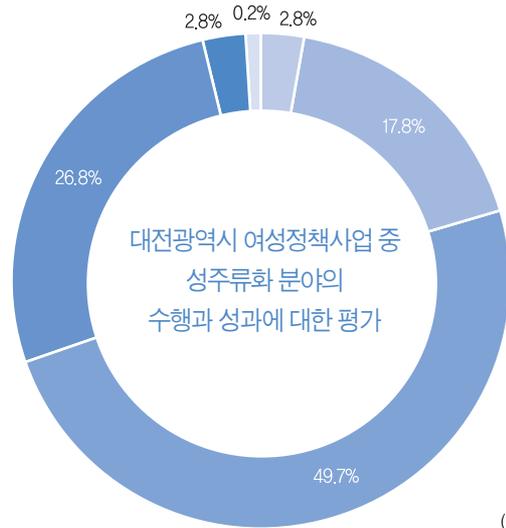
여성 정책사업의 수행과 그 성과에 각 항목별 평가는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 수행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정책 사업 중 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 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복지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로 해석한 결과, 50.1%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복지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일자리, 성주류화 전략의 확산 분야 등은 '그저 그러하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소극적 태도를 알 수 있다.

성주류화 전략 및 관련 분야의 수행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보다는 '그저그러하다'는 소극적 응답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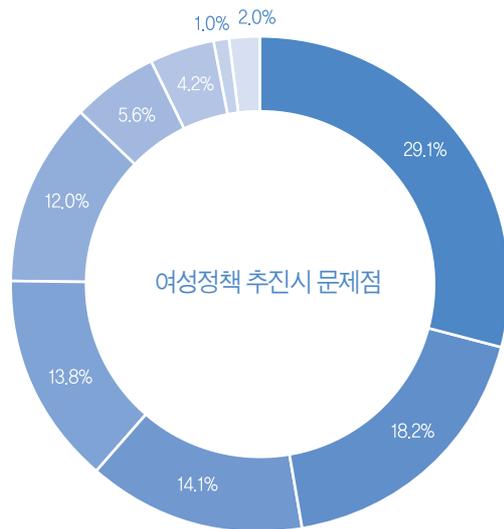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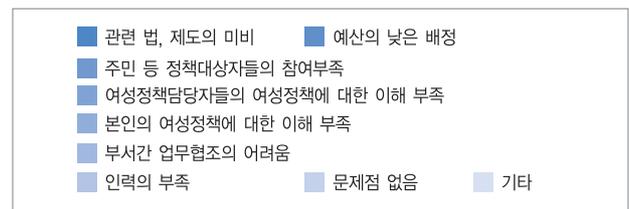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 홍보 미흡, 그리고 다양한 정책의 발굴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성정책 추진 시 문제점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전문가 및 관련자들은 여성정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관련 법제도의 미비함'을 꼽았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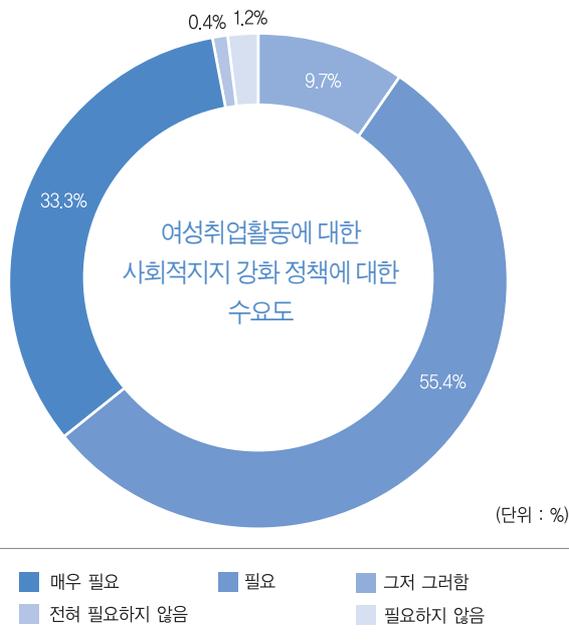


여성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라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산의 낮은 배정'이라는 응답이 18.2%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는 여전히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낮은 배정'도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타 정책 영역들 사이에서 여성정책이 처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역별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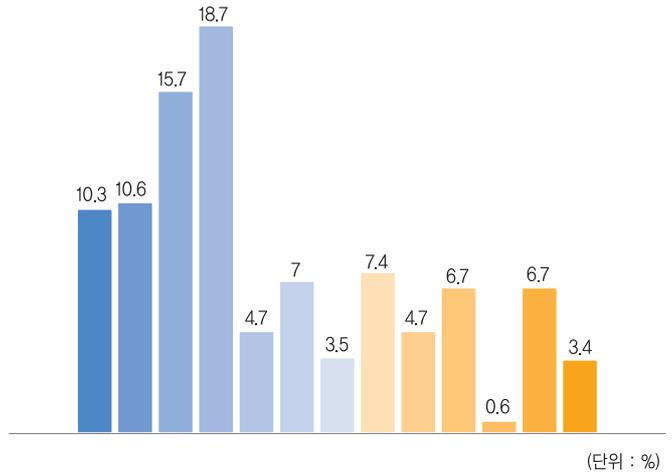
대부분의 여성정책 영역들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응답자들은 여성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과 함께, 보육과 여성친화적 조직·사회 환경 조성 등, 여성이 실질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전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중점 수행해야 할 여성정책의 영역별 핵심과제

대전광역시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여성정책의 영역별 핵심과제에 대해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을 처리한 조사 결과, '여성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라는 응답이 18.7%, '여성일자리 확대', 15.7%,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1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여성일자리 확대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
여성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성인자 정책의 시행
여성의 건강보호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대상별 여성복지욕구 충족	평등문화 확산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1순위로 해야 할 핵심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여성일자리 확대'라는 응답이 21.7%, '여성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20.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기반 및 지원 정책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책 제언

- 특정한 계층의 여성이 정책 실행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아닌,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대상 중심에서 선택적인 정책 테마 혹은 이슈 중심으로의 추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일자리 및 취업을 위한 여성의 실질적 욕구를 파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 취업에 대한 욕구 조사와 병행하여, 취업 후 여성을 지원하는 방법,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육아지원뿐 아닌,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등 광범위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이 집중된 추진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 된다.
- 향후에도 여성정책 추진과 실행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수요조사도 실시되어야 한다.

대전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생산과 소비, 고용 등 실물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대외거래가 활발한 편이지만, 물가상승률이 그간의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은 세계경제의 회복 둔화 우려, 그리스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증시도 2개월째 연속 하락하였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하강 국면을 보인 이후, 2011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3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4월부터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주요국 경기둔화 소지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외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는 인플레 심리 차단 등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는 가운데, 인플레 심리에 기인한 외식비 등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내수기반 확충, 동반성장 여건 조성 등을 통해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

- 2010년 하반기 하강국면을 보이다가, 2011년 1월 들어 회복 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3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4월부터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지속한다.

물가

- 2011년 6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등 농산물과 석유제품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비 등이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전월까지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6월 들어 소폭 확대되었다.

생산

- 2011년 5월, 산업활동은 지난달 생산차질을 빚었던 업종의 정상조업 재개 등에 힘입어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였고, 재고는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다.

금융시장

- 2011년 6월, 금융시장은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려, 그리스 재정 위기 재부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증시도 2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소비

- 2011년 5월, 민간소비는 농산물, 석유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비내구재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 향후 소매판매는 고용회복 등에 따른 소비여력 증대 등을 감안할 때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장마·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을 감안할 경우 6월 소매판매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외거래

- 2011년 5월, 수출은 지난달의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고유가 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흑자폭은 전월대비 2개월째 축소되었다. 전년동월대비로도 수출 및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용

- 2010년 5월, 고용시장은 민간부문과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이 하락하였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실업자 또한 3개월째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행사안내

01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수요조사

- 우리연구원은 대전광역시의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경제발전 등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 연구과제 수요파악을 위해 우리연구원에서는 홈페이지(시민의소리/제안합니다)에 상시 제안코너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본 코너를 이용한 제안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제안하신 내용은 과제선정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과제제안은 형식 및 분량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홈페이지(www.djdi.re.kr) 공지사항에서 기본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Tel: 042-530-3505 제출: Fax: 042-530-3508, E-mail: bluesky@djdi.re.kr

02

반짝이는

대전발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공모

- 응모기간: 2011. 7. 1 ~ 11. 30
- 제안분야 및 내용
 - 경제분야: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환경분야: 대전광역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
 - 사회분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명성분야: 종합적으로 살기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 선정 및 상금
 - 최우수상(분야별 각1명):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우수상(분야별 각1명):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등록방법
 -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제안합니다' 코너 활용(www.djdi.re.kr)
- 문 의
 - 지속가능성조사센터 방정희 042-530-3566

